스리랑카 종정, 달라이라마에 불사리 증정

4월 4일, 인도 다람살라 방문
카필라성 출토 불사리 선물
"中, 달라이라마 방문 막아"
정치인 아닌 불교인 강조도

박영빈 객원기자


마힌다완사 스님과 함께 사리탑을 손에 받들고 관저로 탑을 이운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스리랑카 불교 3대 종단 중 하나인 아마라푸라 니카야 종단 종정 와스카두웨 마힌다완사(Waskaduwe Mahindawansa) 스님이 4월 4일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 달라이라마에게 근본 8탑 중 하나인 카필라성 불탑유적에서 출토된 불사리를 증정했다. 역사적인 사건을 '자유 아시아 방송' '힌두스탄 타임즈' '위온' 등의 외신이 대서특필했다.

지난 4월 4일 달라이라마의 직속 사원인 남갤사원과 달라이라마 관저에서 봉행된 불사리 이운식과 증정식에는 현지불자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지의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마힌다완사 스님과 스리랑카 대표단은 4일 오전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의 캉그라 공항에 도착, 불사리가 봉안된 금빛 사리탑을 들고 인도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다람살라로 향했다. 현지 티베트인 불자들은 손에 꽃과 향과 같은 공양물들을 들고 공항에서부터 불사리를 맞이하러 나왔다.

마힌다완사 스님은 "이 사리는 부처님이 입멸하시고 처음 세워진 사리탑들인 근본 8탑 중, 부처님 친척들인 샤카족들이 세운 카필라바스투성의 불탑에서 출토됐다"면서 "탑을 발굴한 윌리엄 페페와 당시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알렉산더 커닝험은 사리 일부를 당시 스리랑카에서 가장 존경받던 장로였던 와스카두웨 스리 수부티 스님께 선물했고, 이래로 이 사리는 대대로 나의 사찰에서 지켜져 왔다"며 내력을 밝혔다.

스님은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불교 지도자"라면서 "나는 오래전에 여러 차례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보고 듣게 되었다. 이후 다른 많은 사람에게 달라이라마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묻고, 숙고한 끝에 직접 만나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금까지 203번의 만남을 가졌고, '스리랑카-티베트 불교형제단'도 창설됐다"면서 "나는 이 깊은 인연에 감사를 표하여 스리랑카의 특별한 보물을 선물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이 바로 이 카필라바스투의 불사리"라고 달라이라마에게 사리를 증정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사리탑은 남갤사원 산문에서 달라이라마 관저 앞까지 티베트 고승들의 영접을 받으며 이운됐다. 남갤사원의 스님들은 법구들을 연주하고 향과 깃발을 들어 불사리를 환영했으며, 현지 불자들은 사리탑을 향해 꽃과 비단 스카프를 던져 경의를 표했다.

달라이라마는 직접 관저 앞으로 나와 사리에 예를 표했으며, 마힌다완사 스님과 함께 사리탑을 손에 받들고 관저로 탑을 이운했다. 달라이라마는 스리랑카 대표단에 감사를 표하며 "이 세계는 평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불교 자체를 언급하는 것보다 세속적인 윤리와 자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항상 자비행을 실천할 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마힌다완사 스님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스리랑카 불교계는 달라이라마를 존경하며, 여러차례 스리랑카에 초청했으나, 중국 정부가 스리랑카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스리랑카 불교계는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달라이라마는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불교 지도자이고 자유가 있으며, 우리 역시 초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日, 300년 만에 대수리를 마친 불상 2구 귀향

하쿠잔 신사 봉안 대일여래상
지역 모금 통해 복원비 마련


수리가 완료된 불상에 예경하는 101세의 노인.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600년 전에 조성돼 300년 만에 수리를 마친 불상 2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지난 4월 3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일본 이와테현(岩手県) 하나마키시(花巻市)에 소재한 하쿠잔 신사(白山神社)에 봉안돼 있던 불상의 수리가 종료, 대중들에게 공개됐다고 전했다.

한국의 전통신앙이 불교에 흡수된 것처럼, 일본 역시 고유의 종교인 신토(神道)가 불교와 융합된 신불습합(神佛習合)의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러한 영향에서 사찰 경내에 신사가 있거나, 반대로 신사에서 불상을 봉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대에 들어 이 둘을 분리하려는 운동이 일어나 신사에 봉안돼 있던 불상이나 불구가 대거 훼손되던 시기가 있었다. 한편 하쿠잔 신사에 봉안된 2구의 대일여래상은 이러한 시기를 무사히 넘긴 드문 사례로 지금도 신사 경내의 불당에 봉안, 현 지정문화재로 등록돼있다.

하쿠잔 신사의 대일여래상은 각각 불상에 남은 명문과 신사의 기록에 따라 1389년과 1700년에 조성된 것이다. 하나마키시 교육위원회는 "1389년의 불상은 당시 현지의 호족가문이었던 오하타 씨가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며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700년의 불상은 앞선 불상의 손상이 심해지면서 당시 지역주민들이 기부금을 모아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불상은 모두 계수나무로 조성된 좌상으로 높이 150cm의 대형 불상. 두 불상 모두 세월에 따른 부식과 충해 등으로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 더욱 훼손이 심해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제기와 지역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가에서 4분의 3을, 나머지는 지역 모금을 통해 복원비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 진행된 복원작업은 문화재 복원전문 장인인 나스카와 요시오에 의해 진행됐다. 나스카와 장인은 "14세기의 불상은 1722년에 한차례 수리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진행된 충해로 인해 주의해서 만지지 않으면 불상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상태에 이르렀다. 불상 내부에 척추역할을 하는 나무기둥을 삽입하고, 벌레 먹은 구멍에 수지를 주사해 굳히는 작업 등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불상의 수리가 종료되고 대중에 공개되던 날 불상을 맞이한 주민들 모두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올해 101세를 맞이한 한 노인은 어렸을 적부터 예경해 온 불상이 돌아온 것을 보고 "수리가 시작된다는 말을 듣곤 생전에 다시 부처님들을 친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리 말끔해진 모습을 보니 살아있길 다행"이라며 감동의 눈물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불교 유적지서 고대 동전 수천 개 출토

기원전 1세기경 주조 추측돼
인도 전설의 왕조 실존 증거


파니기리 불교 유적에서 출토된 납 주화가 담긴 토기 항아리. 사진 출처=인도 문화유산부

인도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에서 고대 동전 수천 개가 담긴 토기 항아리가 발견돼 화제다.

지난 4월 5일 인도 언론 '더 힌두'는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 발굴조사에서 이크슈바크 왕조(태양 왕조, 기원전 11세기~기원전 476년)때 주조된 고대 동전 수천 개가 담긴 토기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파니기리 불교유적지는 데칸의 서쪽과 동쪽 해안을 연결하는 고대 무역로(닥시나파타) 인근 언덕에 건립된 정사(精舍)로 고대 문화와 경제 교류의 중심지였다.

인도 문화유산부는 3월 29일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 발굴조사에서 지름 16.7cm, 높이 15cm 크기의 토기 구형 항아리를 발견했다. 항아리 안에는 이크슈바크 왕조 때 주조된 고대 납 주화 3730개가 들어있었다.

인도 문화유산부 바라티 홀리케리 국장은 30일 발굴 현장을 방문한 뒤 "인도 유적발굴 사상 최초로 한 곳에서 대량의 주화가 출토됐다"면서 "지층학과 유형학 연구를 통해 이 동전은 이크슈바크 왕조 때 주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교 역사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또한 납 주화의 발견은 인도에 보존된 불교 유산의 풍부함과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원전 11세기~기원전 476년 사이에 번성한 이크슈바크 왕조는 인도 신화에서 아리바르타 땅을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을 세우며 최초의 전륜성왕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 이크슈바쿠를 시조로 하는 고대 인도의 전설적인 왕조이다. 그러나 이크슈바쿠 왕조를 기록한 역사·종교 문헌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 여전히 학계에서 진위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네팔 룸비니서 불교 탑 유적 발견 화제

히말라야 지역 불교 전법 시사
지난해 탑 상륜부 파편 출토도


틸라우라코트 탑 유적지 발굴 현장.
사진 출처=나가 릭

지난 4월 1일 네팔 일간지 '나가릭'은 네팔 남부 룸비니주에서 발견된 탑 유적 소식을 전했다.

네팔 남부 룸비니주 틸라우라코트 불교 유적지에서 탑 유적이 발견됐다. 틸라우라코트는 고대 샤카족의 도시인 카필라바스투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부처님의 아버지인 숫도다나 왕의 고대 궁전이자 부처님의 고향으로 여겨진다.

네팔 고고학부 람 바하두르 쿠와르 최고 고고학 책임자는 "틸라우라코트 불교 유적지 발굴 과정에서 탑 유적이 발견됐다. 동부 비하르와 더르바르 지역에서 중심 구조물 범위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탑 기단부 파편과 말뚝 구멍, 기와가 나왔다. 지난해 발굴에서도 탑 상륜부 파편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룸비니개발신탁의 고고학 담당자인 히말 우프레티는 "말뚝 구멍과 기단부 파편 및 기와 그리고 상륜부 파편 등을 조사한 결과 네팔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만들어진 탑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쿠와르는 "탑은 불교 순례자들이 히말라야 지역에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틸라우라코트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네팔 스님에 따르면 네팔의 탑은 히말라야 스님들이 예불을 위해 세운 것으로 상좌부불교와 대승불교 전통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틸라우라코트의 불교 유적지는 1996년 유네스코 잠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